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딥시크 이어 문샷 쇼크..미국증시 이틀째 하락

- 미국증시 이틀 연속 하락
- 중국 문샷의 'Kimi K3' 충격: 기술주 약세
- 미국-이란, 공격 범위 확대..WTI 4% ↑

Summary

미국증시 이틀 연속 하락

7월 17일 금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 마감. 중국 AI 개발사 문샷의 신형 AI 모델 'Kimi K3'가 보유한 기술적 경쟁력을 확인하며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과 기술·가격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부각, 하이퍼 스케일러와 반도체주 등 AI 관련주 전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이날 옵션만기를 맞은 미국 증시는 장 초반 급락하던 반도체 등의 기술주가 후반 낙폭을 축소하는 등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77% 하락한 52,146.42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01% 하락한 7,457.69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1.40% 하락한 25,520.24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49%, 러셀 2천 지수는 0.42% 하락함. 변동성 지수 VIX는 12.19% 급등, 18.77에 거래를 마침.

(다우 -0.77%/ S&P500 -1.01%/ 나스닥 -1.40%/ 러셀2000 -0.42%)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0.93% 하락해 2주 연속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S&P500지수는 3주만에 약세 전환, 한 주간 1.55% 하락함. 나스닥 지수도 3주만에 약세 전환, 주간 수익률 -2.9%를 기록함.

딥시크 이어 이번엔 문샷 쇼크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이 신규 AI 모델 '키미(Kimi) K3'를 공개. 문샷은 이 Kimi K3 모델이 파라미터 2.8조개 모델로, 세계 최초의 3조 파라미터급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밝힘. 파라미터는 언어 모델이 응답을 생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의 수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현재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 등의 주요 AI 기업들은 최신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다만 업계에서는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클로드 오퍼스 4.80이 1.5조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Kimi K3는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 중 파라미터 규모 면에서 단연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임.

문샷은 자체 벤치마크 결과 Kimi K3가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GPT-5.5와 클로드

오픈스 4.8을 앞섰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에이전트 기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힘. AI 성능 분석 업체 아티피셜 어널리시스는 Kimi K3의 지능 지표가 57점으로 스페이스XAI의 그록4.5나 메타의 뮤즈 스파크, 구글의 제미니 3.5플래시 등에 비해 앞서 현존 모델 중 4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나 오픈AI의 GPT-5.6 솔 맥스, GPT-5.6 솔 엑스하이에 비해서는 약간 뒤지는 수준. 실제 문샷도 클로드 페이블5와 오픈AI 5.6 솔에는 미치지 못해 미국 최상위 폐쇄형 모델과는 일정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

즉 Kimi K3가 최상위 AI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다는 미국 선두권 모델을 성능 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함. 제프리스 역시 '중국 AI 기업들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예상보다 빠르게 좁히고 있다'며 'AI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한편 비용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더 적은 비용으로도 미국 최고 수준의 AI의 기술력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인식, 그로 인한 비용/기술 경쟁 본격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미국 빅테크의 막대한 Capex(설비투자) 전략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져 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 중심의 시장 하락을 촉발.

현재 미국 AI 대표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증설과 그를 위한 반도체 확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역시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을 진행하며 이들 중 일부는 회사채 발행, 증자 등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음. 다만 만일 중국 기업들이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AI 모델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미국 빅테크들이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는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와 규모의 확장, 나아가 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뒷받침해왔던 내러티브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우려가 확산.

미국-이란, 공격범위 확대..유가 4% ↑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날까지 7일째 이어짐. 공습 범위도 이란 남부 해안과 주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주변의 교량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 등의 걸프국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 내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의 민간 인프라가 공격받기도.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기뢰 설치 해역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협을 둘러싼 분위기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 이에 브렌트유는 4% 가량 상승, 배럴당 88달러를 기록해 한 달만에 최고 수준까지 회복함.

이번주: 알파벳 실적에 관심 집중

하이퍼스케일러와 반도체 등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이번주 시장은 현지시각 22일 장 마감 이후, 한국 시각으로 23일 새벽 발표되는 알파벳 실적에 주목할 전

망. 하이퍼스케일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하는 알파벳은 Capex(자본지출) 가이던스와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등을 통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확인, 혹은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임. 차세대 AI 모델 '제미니 3.5 프로' 모델의 출시가 코딩 능력 향상에서의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수 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

이외 테슬라와 인텔 등도 전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이번주: 미국-이란 확전, 그리고 홍해

한편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을 띄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우회로로 활용돼온 홍해 수출로의 안전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데,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동부 유전에서 서부 홍해 연안으로 원유를 운송한 뒤 이를 홍해 항로를 통해 수출하고 있음. 후티와 사우디의 쌍방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티가 사우디에 대한 보복으로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 나오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막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물류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음. 영국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양 해협이 동시에 막히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사우디 송유관, 항만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편 현지시각 17일,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미군 2명이 전사했으며 미국은 이란군을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힘. 이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의 모든 의무를 위반하고 중단했기에 이란 역시 의무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힘.

이란과 미국 사이 군사 긴장 고조와 공격 범위 확대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 달 전 수준까지 상승한 가운데 주말 사이 지난 3월 이후 첫 미군 전사자 발생으로 사태가 추가 악화됐으며 여기에 후티와 사우디 사이 형성된 긴장의 강도에 따라 유가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어 이번주 관련 이슈와 유가 향방은 여전히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문샷 쇼크: 하이퍼스케일러, 반도체 등 하락

중국 AI 개발사 문샷이 출시한 최신 AI모델 Kimi K3는 미국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자본 지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유지하게 할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짐. 또한 중국 기업들의 빠른 기술 격차 축소로 미국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계감을 불러 일으킴. 이에 빅테크 대부분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으며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 축소 가능성은 반도체주에 직접적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

도체주도 대체로 하락.

마이크로소프트(-1.81%), 구글 알파벳A(-2.17%), 메타 플랫폼스(-2.79%), 아마존닷컴(-1.06%).

구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알파벳A, -2.17%)이 최상위 플래그십 AI 모델 '제미나이 3.5 프로'의 출시를 예정보다 수 개월 늦추고 있다고 보도. 앞서 구글은 지난 5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경량 AI 모델인 '제미나이 3.5플래시'를 선보이는 한편 본 모델 '제미나이 3.5프로'도 6월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 있음. 블룸버그는 '제미나이 3.5프로 모델 출시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미나이의 코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 결과가 실망스러웠기 때문' 이라고 전함. 중국 업체의 추격 소식에 미국 내 경쟁에서마저 뒤처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이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A 주가는 장 중 4%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음.

다만 애플(+0.14%)은 장 중 엔비디아(-2.21%)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환하기도 했음. 애플은 한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거란 우려로 주가 약세 요인이 됐던 제한적 AI 전략과 자본 지출 모델이 울들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가운데 연초 이후 20% 이상 상승, 최근 사상 최고가 랠리를 재개. 반면 AI 칩 제조사 엔비디아는 AI 칩에만 쏠려있던 시장 관심이 메모리 반도체, 여타 인프라 등으로 확산되며 연초 이후 상승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함. 마감가 기준 애플의 시가 총액은 4.902조 달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4.908조 달러를 기록해 1위 엔비디아, 2위 애플 구도로 다시 뒤집혔으나 애플이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 중임.

한편 반도체주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63%)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기술적 약세장 영역에 진입. 엔비디아(-2.21%), 브로드컴(-0.9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50%), 인텔(-2.00%), AMD(-1.03%), 샌디스크(-3.99%) 등이 하락. 다만 대부분 하락 종목이 저점 대비 낙폭을 축소했고 웨스턴 디지털(+2.23%), 시게이트 테크놀로지(+5.66%), 델 테크놀로지스(+1.27%) 등은 오히려 상승세로 거래를 마쳐 장 중의 관련주 투자심리 악화가 마감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 퀄컴(+0.69%)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50%)와 함께 오디오 제품 제조사 하만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상승.

장 중 5% 이상 하락했던 SMH(-2.18%)는 절반 이상 낙폭을 축소하며 거래를 마쳤고 SOXQ(-1.65%)도 장 중 5.6% 이상 하락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시가 위에서 마감. 라운드 힐 메모리 ETF DRAM(+0.73%)은 장 중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반등권에 거래를 마쳤고 테마 메모리 ETF DISK(-1.87%)는 역시 장 중 7% 이상까지 벌어졌던 낙폭을 거의 축소해 마감. 코닝(-2.39%), 루멘텀 홀딩스(+3.77%), 코히어런트(+0.23%) 등 광전자 관련 종목들도 오름폭을 축소하거나 반등했음.

다만 반도체 설계 관련 종목들은 낙폭을 대체로 크게 벌린 채 마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9.47%), 시놉시스(-7.85%) 등 반도체 설계 관련 종목들도 하락. 문샷의 Kimi K3가

오픈소스 EDA 도구를 사용해 나노 칩을 설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들 업체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 것. 다만 BNP 파리바는 AI가 기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택 상위에서 수작업 반도체 설계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며 시장이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여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 오히려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에 대한 하락 시 매수 관점 대응을 권하기도 했음.

사이버 보안주 강세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대체로 약세권에 마감한 종목들이 더 많았음. 세일스포스(-1.11%), 서비스나우(-0.74%), 마이크로소프트(-1.81%), 데이터도그(-1.38%), 인튜이티브(-1.25%), 워크데이(-0.45%).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ETF IGV(-0.96%)도 이들 연속 하락.

다만 지스케일러(+2.40%), 포티넷(+0.52%), 옥타(+1.09%), 펠로 엘토 네트워크스(+1.32%) 등 사이버 보안주는 강세. 대부분 종목이 최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펠로 엘토 네트워크스는 이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 회사 CEO는 최근 프론티어 AI 시스템의 등장은 수개월 전 시장이 가졌던 보안 소프트웨어 '무용지물론'과 정 반대로 오히려 보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 캐피탈 원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는 한편 목표가 역시 기존 307달러에서 421달러로 상향. 웰스파고는 420달러, 씨티는 400달러, 티그리스 파이낸셜은 430달러 등 대체로 400달러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음. 펠로 엘토 네트워크스의 이날 증가는 358.68달러.

유가 급등에 에너지주 강세

S&P500 섹터별 등락으로 보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권에 머물렀음. 다만 에너지 섹터는 상승.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갈등이 심화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에너지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엑슨 모빌(+0.97%), 셰브론(+1.92%), 다이아몬드 에너지(+2.85%), 코노코 필립스(+1.66%), EOG 에너지 리소시스(+1.03%), 옥시덴탈 페트로리엄(+2.25%), 발레로 에너지(+3.13%).

이외 특징주

로봇 수술 시스템 전문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14.15%)은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미국 내 다빈치 시술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급락. 회사 CFO는 '시술 성장률이 1분기부터 약간 둔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스티펠은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목표주가를 기존 670달러에서 550달러로 하향 조정함.

애보트 래브러토리스(+2.19%)는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연간 이익 가이드언스를 상향. 최근 인수한 암 진단 사업 부문의 수요 강세에 힘입은 결과로,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드언스에 전 거래일 10% 이상 급등한데 이어 금요일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함.

넷플릭스(-7.26%)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지만 현재 진행 분기 실적 가이드언스가 매출과 순이익 양단에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7%대 추가 하락.

스페이스X(-5.43%)는 이날 스타십 로켓이 13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발사를 앞둔 마지막 순간 자동 중단. 엔진 중 일부가 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이번주 초 다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전 거래일 상장 이후 종가 기준 처음으로 공모가 135달러를 하회했으며 이날도 정규장에서 5%대 추가 하락해 종가 123.99달러를 기록,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함. 스타십이 발사 직전 중단됐다는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도 5% 이상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이란 확전 우려..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데 이어 확전 양상을 보이자 큰 폭 상승.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날까지 7일 연속 지속했으며 교량과 철도 시설 등으로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 이란 또한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쿠웨이트에서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음. 양측이 해수 담수화 시설과 교량, 철도 시설 등 암묵적으로 공격을 자제해왔던 기반 시설들로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황 악화 우려를 반영, 4.48% 급등한 배럴당 82.49달러에 마감. 브렌트유 9월물은 4.59% 상승한 배럴당 88.10달러에 마감.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현재 원유 재고가 충분해 몇 주간의 물류 지연은 버틸 수 있지만 교전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경우 기존 재고 수준과 관계없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위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함.

국제 금가격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하며 상승,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산하 금속 선물거래소 코멕스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0.67% 상승한 트로이 온스 당 4,018.80달러를 기록. 은값도 0.25%, 온스당 56달러대까지 상승.

국채 금리 혼조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이 상승하고 장기물이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약세 압력을 받자 국채 금리는 대체로 하락(가격 상승). 다만 중동 지역 전황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금리 인상 베팅이 강화되며 단기물 금리는 소폭 상승.

2년물 국채 금리는 3.6bp 상승한 4.1767%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6bp 하락한 4.5474%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하락한 5.0690%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15% 내외로 전장 대비 약간 높여 반영됐으며, 9월 인상 가능성은 50% 후 반대로 역시 전장 대비 상승.

달러 장 중 '전강후약'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권에 머물다 소폭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혼조. 초반 증시 하락과 함께 상승 압력을 받았던 달러화 가치는 장 후반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기술주 투매 심리가 다소 완화되자 상승 폭을 줄여 약보합 수준으로 돌아섬. 이후 보합권 등락.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100.765로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478.50원에 거래를 마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85원)를 감안시 9.50전 상승한 1,487.15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